2026.10.29

Equity Strategy

글로벌전략 허재환
6176 / jaehwan.huh@eugenefn.com

10 월 FOMC 회의: 쉼표

❝ 2026/10월 연준은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했음(3.75~4.0%). 지난 9월 연준이 3년 2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한 이후 속도를 조절한 것임. 전반적인 뉘앙스는 그다지 매파적이지 않았음.

❝ 1) 매파적인 신호는 12명 연준 위원들 가운데 반대표가 2명 나타난 것임(리사 쿡 연준이사, 헤멕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리사 쿡 이사는 대외적으로 그다지 매파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외였음.

❝ 2) 성명서에서 "더 많은 정보가 쌓이면 물가를 2% 목표로 적시에 되돌리는 데 적절한 정책기조를 위원회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문구가 추가됨.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함.

❝ 3) 그러나 워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가 높다면서도 기대 인플레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언급함. 또한 금리를 동결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워시 의장은 중간선거 영향을 부인했지만, 설명은 부족했음. 그래도 금리를 당장 가파르게 인상할 필요성을 크게 보고 있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함.

❝ 4) 2027년 이후 연준의 금리 결정 횟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임. 2027년 8차례 정례회의 중 7차례만 금리를 결정하고, 2028년에는 6차례만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힘.

❝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가 바뀌지는 않았음. CME Fed Watch에 따르면 12월 인상 확률은 80%대에 육박함. 그러나 최근 유가 상승 압력(WTI 102달러, 브렌트 115달러)를 감안하면 추가 인상 기대가 더 높아지지 않고 있음. 증시 밸류에이션 하락 압박이 심해지지 않을 전망.

❝ 기업이익 기대는 다소 진정될 가능성이 높음.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지출 투자 증가가 미국과 국내 기업이익 추세를 결정함. 빅테크들의 공격적인 투자는 이어지더라도, 메타/알파벳 등 잉여현금흐름 적자에 대한 우려는 이어짐. AI 투자 속도는 26년이 정점이 될 수 있음.

❝ 그럼에도 최근 반도체와 국내 증시 하락은 과도함. S&P500 대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대강도는 22/10월, 25/4월, 즉 미국 증시 단기 저점에서 나타난 수준까지 하락함. S&P500 대비 코스피 상대강도는 2001년 이후 가장 낮음. 반도체 등 주가 회복 시도는 가능할 시점임.

❝ 전일(10/28일) 모처럼 주가 급등에도 10/2일 후 주가 하락 폭이 컸던 반도체와 IT하드웨어 업종에 대한 관심은 유효함. 그러나 모든 낙폭과대 업종이 반등하지는 못함(조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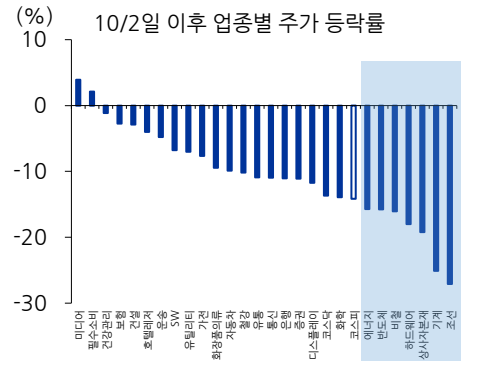
미국 추가 금리인상 압력이 더 확대되지 않고 있어

자료: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미국 반도체주 상대성과는 단기 저점 부근

자료: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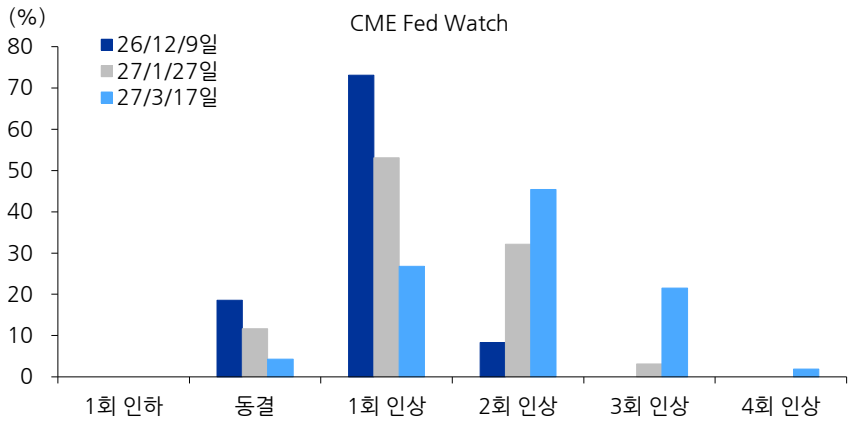
28일 급등에도 낙폭이 큰 반도체/소부장



자료: Quantiwise,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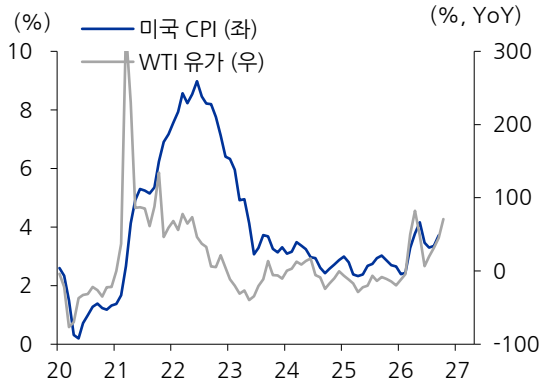
유진투자증권

연준 금리인상은 추가 1~2 회 예상이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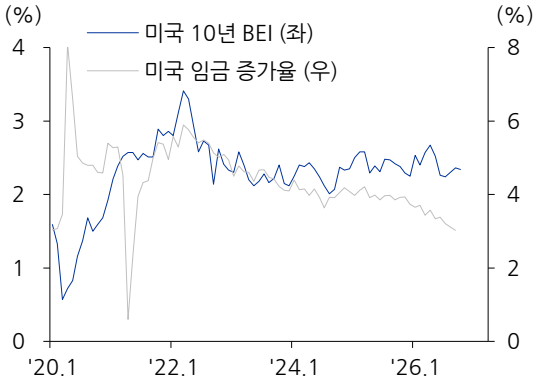
자료: CME Fed Watch, 유진투자증권

국제유가 상승은 미국 물가 상승 압력



자료: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반면 미국 인플레 기대와 임금 상승률은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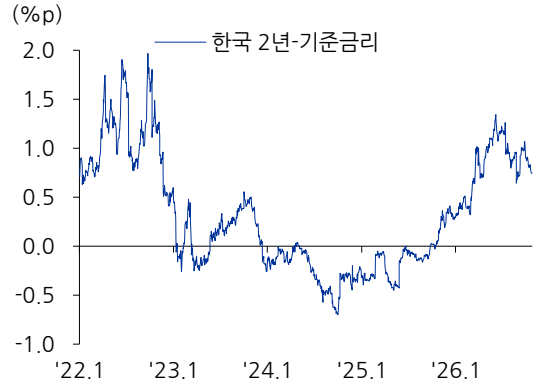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미국 추가 금리인상 압력은 더 높아지지 않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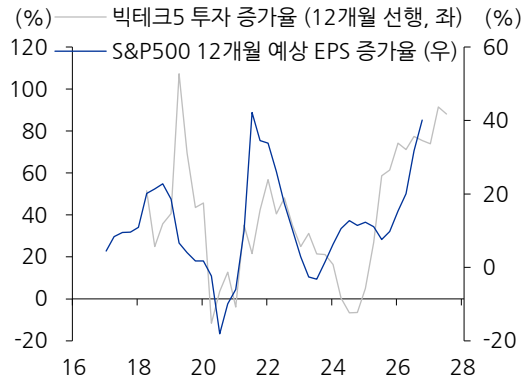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국내 기준금리 인상 압력도 점차 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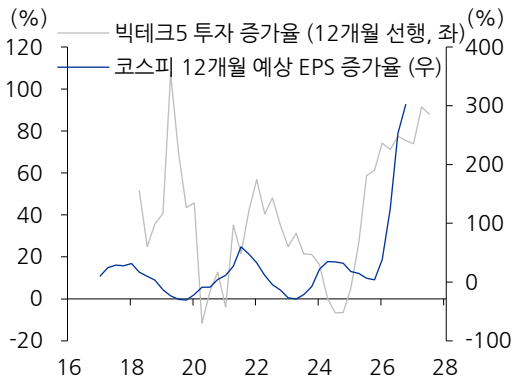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미국기업 실적 추세를 결정하는 빅테크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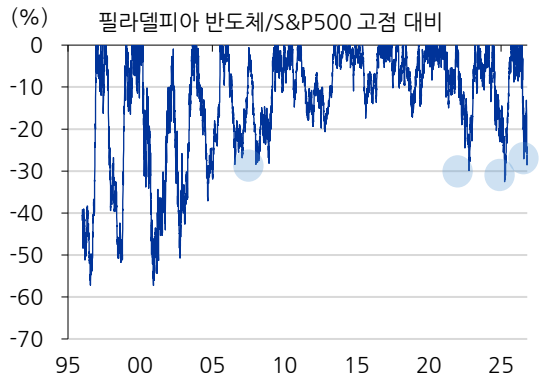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빅테크 투자는 코스피 기업이익에도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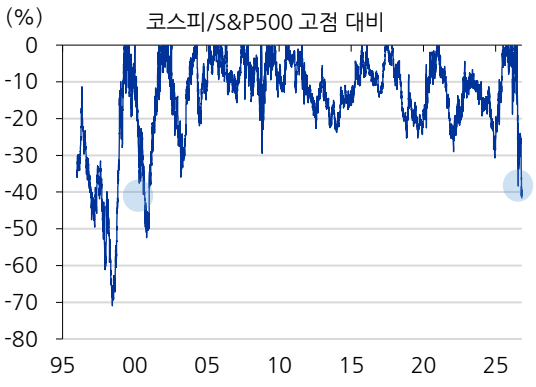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미국 반도체주 상대성과는 단기 저점 부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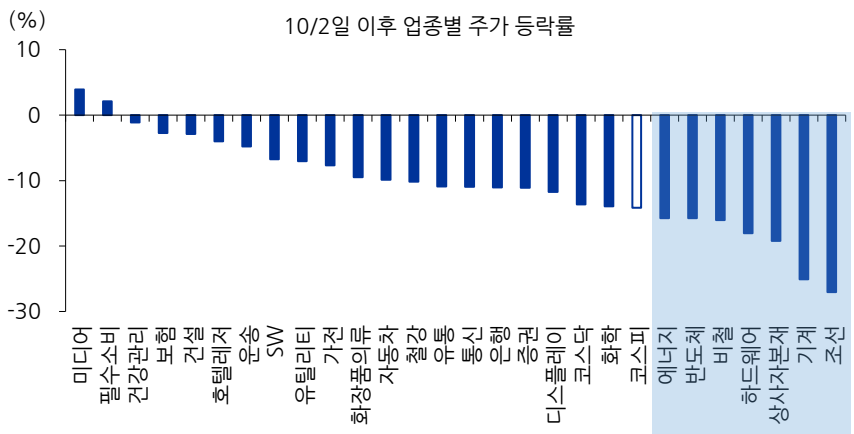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미국 대비 코스피 상대강도는 2008 년 이후 최악



자료: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10 월 이후 주가 급락 과정에서 낙폭과대 업종과 덜 하락했던 업종



자료: Quantiwise,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